

듣는

2024년 5월호

마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3. 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 4

오늘의 성경읽기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 128

5월 3일 공과 -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0일 공과 -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5월 17일 공과 -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의 모습

5월 24일 공과 - 하나님의 자녀

5월 31일 공과 -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선교지에서 온 편지 · 138

헝가리

요르단

아가 7:1-13 사랑의 대화

아름다운 신부를 향한 칭찬

1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동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2**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뎀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5**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6**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

10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1**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13** 함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9장

23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시편 45편

6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히브리서 7장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가 7:1-13

사랑의 대화

아름다운 신부를 향한 칭찬(1-9절)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은 또 다시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쏟아냅니다. 그의 칭찬이 진심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신부의 칭찬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1절에서 신부의 발로 시작하여 8절의 콧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칭찬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자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된 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10-13절)

신랑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구체적인 칭찬을 전해 들은 신부는 자신이 신랑에게 속했음을 고백합니다(10절).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선언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백하고 선언할 때 모든 이들이 알게 되어 하나님께 속함이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어 신부는 신랑과 더욱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아가 8:1-14 신랑의 진정한 기쁨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의 마음

1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3**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4**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5**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9**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यो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10**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12**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13**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14**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0장

33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고 **34**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시편 46편

11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히브리서 8장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가 8:1-14

진정한 기쁨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의 마음(1-7절)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받다 보니 아팠던 과거가 떠오릅니다(1절). 하지만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신부를 앓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로 아프지 않습니다. 신랑의 따뜻한 품이 있기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도 지난날의 상처에 앓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모든 상처를 치유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8-14절)

신부는 자신을 향하여 든든한 사랑을 누리게 해주는 신랑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신랑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신부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13절) 때로 신부 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십시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48:1-14 위기의 때에 올려드리는 찬양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1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3**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4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며 **5**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영원히 지키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

9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2**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13**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1장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사야 1장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시편 48:1-14

위기의 때에 올려 드리는 찬양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1-3절)

시편 48편은 위기에 처한 시편 기자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4-8절)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믿음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기 가운데로 몰고 온 대적들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영원히 지키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9-14절)

위기의 때에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멸하실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은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을 믿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 현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49:1-20 무엇을 의지하는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1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리다 **5**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죽음을 볼 수 밖에 없는 인생

9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다 **11**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3**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셀라) **14** 그들은 양 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셀라) **16**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다 **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2장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사야 2장

12 대저 만군의 야훼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히브리서 10장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49:1-20

무엇을 의지하는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1-8절)

시편 49편의 기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들을 것을 요청하며 환란의 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5절). 그 환란의 날은 원어적으로 재난이나 슬픔 등의 부정적 모습이 닥치는 날이며 결국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심판의 때가 있는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환란의 날에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재물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심판으로 오는 죽음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볼 수 밖에 없는 인생(9-20절)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죽습니다(10절). 그뿐만 아니라 재물은 당연히 남겨두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는 결국 많은 이들이 좇는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15절). 우리도 그 확신 안에 믿음으로 거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히브리서 11:1-14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 이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시편 50편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3장

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히브리서 11:1-14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1-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 현재 우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장차 그것들은 사실로 나타나는 증거가 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7-14절)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확신에 찬 까닭은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11장에 언급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의 인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삼위 하나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히브리서 12:1-14 믿음의 경주와 징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통해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끈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5장

40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시편 51편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장

16 오직 만군의 야훼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히브리서 12:1-14

믿음의 경주와 징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1-5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달리기 경주자가 가벼운 복장을 하고 달리기에 임하듯이, 믿음의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란 온갖 종류의 세상 염려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남편(또는 아내)과 자녀들 등 가정에 대한 염려를 포함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 음란, 거짓과 탐욕 등의 죄악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6-14절)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그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실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에게 비난을 들으셨고 침 뱉음과 매 맞음을 당하셨고 별거벗기어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런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히브리서 13:1-15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6장

9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시편 52편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 하리이다

이사야 6장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히브리서 13:1-15

그들의 믿음을 본 받으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1-8절)

5절에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9-15절)

성도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5절). '예수로 말미암아'는 문자적으로 '그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②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미하는 제사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야고보서 1:1-15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시련과 인내에는 지혜가 필요함**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으로 인함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8장

19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시편 55편

22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7장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야고보서 1:1-15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시험과 인내에는 지혜가 필요함(1-11절)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잘 대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 되고 진주보다 귀하므로, 사모하는 다른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그것을 후히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으로 인함(12-15절)

‘시험’이라는 원어는 ‘유혹’이라는 뜻이지만, ‘시련’이라는 원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환난의 시험을 잘 참으면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잘 통과한다면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욕심으로 인해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모든 욕심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야고보서 2:1-17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참된 성도의 인간관계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19장

9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돌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시편 56편

9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사야 8장

10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야고보서 2:1-17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참된 성도의 인간관계(1-13절)

본장 서두에서는 교회 내의 형제 차별을 책망하며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재물, 권력 등)으로 성도를 차별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형제간의 차별의 부당성을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친절을 닮아가야 하고(1-4절),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5-7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8-11절), 그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계속 차별한다면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과 상관 없는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14-17절)

믿음 안에서의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룬 앞 단락에 이어, 여기서는 본질적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며(14-17절),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라합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위로써 증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까지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야고보서 3:3-18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혀의 위험성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0장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시편 59편

17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사야 9장

9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뿔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야고보서 3:3-18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혀의 위험성(3-12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교훈하는 중, 본문은 혀를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까닭은 비록 혀가 아주 작은 지체이나 인간을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4-5절), 다른 사람까지도 능히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8-12절). 물론 그 혀를 통제하는 것이 심히 어렵긴 하지만(7-8절),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혀의 굴레를 씌워 덕스럽지 못한 말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혀의 위험성을 늘 인식하고 상처와 비방의 언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이 아닌, 바르고 온전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13-18절)

앞에서 혀에 대한 통제력을 진정한 성도의 증거로 제시하였다면, 여기서는 참된 지혜를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참된 지혜란 타락한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 한다면, 그는 자신을 파멸케 할 거짓된 지혜의 소유자이고, 참된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으로서 언행심사 곧 인간의 전 영역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야고보서 4:1-12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들

세상의 정욕에 대한 경계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 간음한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11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1장

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시편 61편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사야 10장

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야고보서 4:1-12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들

세상의 정욕에 대한 경계(1-10절)

야고보서 4장은 정욕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을 좇고 간음으로 세상과 벗이 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과 성결의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욕적인 삶을 이익추구를 위한 싸움으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세상적인 욕심, 정욕으로 유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7절). 세상적인 정욕에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입니다(2절).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10절).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11-12절)

야고보는 타인과의 싸움(11-12절) 등을 성도들이 신속히 그쳐야 할 행위들로 제시합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척도일 뿐이며, 남을 비판하기 위한 척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행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이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기에 힘써야 할 뿐, 율법의 재판관 곧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한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야고보서 5:7-20 고난 중 인내와 형제를 위한 기도

고난 중의 인내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형제를 위한 기도 권면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2장

34 발람이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시편 62편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도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11장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야고보서 5:7-20

고난 중 인내와 형제를 위한 기도

고난 중의 인내(7-12절)

앞부분(1-6절)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면, 이 부분은 불의한 부자들로 말미암은 궁핍과 핍박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듯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들(7-9절)과 암울한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선지자들(10절) 그리고 극한 고난을 통과했던 욥(11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참된 위로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권면(13-20절)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성도 간의 복된 도움과 위로, 그리고 중보 기도 등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도들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기도로써 도움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홀로 고난을 견디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힘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 당하는 자들과 나누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즉 성도들은 환난 극복(13절), 질병 치료(14-18절), 배교 방지(19-20절)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도움 보다도 진정 성도 간의 영적 교제야말로 서로에게 강력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전서 1:1-12 구원의 능력과 위대함

믿는 자들의 산 소망, 구원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찌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이 계시됨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시편 64편

10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사야 13장

11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1-12

구원의 능력과 위대함

믿는 자들의 산 소망, 구원(1-9절)

베드로는 주님을 전파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공활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근심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산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시련을 견디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소망하는 과정을 통해 더 연단을 받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순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이 계시됨(10-12절)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 선지자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고난 후에 영광을 증언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전서 2:11-25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선한 행실을 가지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수를 닮은 삶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4장

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시편 66편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14장

24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2:11-25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선한 행실을 가지라(11-18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교회들은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즉 당시 로마시대에 사람들은 음란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한다고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비방하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선한 행실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선한 행실은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과 총독과 같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 된 자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삶(19-25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신 분이였음에도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하는 자들에게 맞서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판단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능력이 있었으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괴로움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전서 3:8-22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어지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인을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심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5장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시편 68편

35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15장

1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3:8-22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8-17절)

세상의 사람들은 악육강식의 원리, 힘의 원리로 살아가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계속되는 핍박에 우리는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선한 행실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심 (18-22절)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셨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은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마침내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즉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전서 4:1-11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들

거룩한 삶을 취하라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죽하도다 **4** 이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라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6장

65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시편 69편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사야 16장

5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베드로전서 4:1-11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들

거룩한 삶을 취하라(1-6절)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지난날에 로마 사회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지나간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정욕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7-9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고 기도하며 그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죄를 누우치고 죄악 된 삶에서 돌아선 성도에 대해 완전히 용서하고 품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라(10-11절)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청지기와 같이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전서 5:1-14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장로와 젊은이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와 작별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7장

18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시편 71편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사야 17장

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벧전 5:1-14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장로와 젊은이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1-11절)

장로(목회자)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하려면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1절), 양 무리를 돌 보며 더러운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2절). 또 한 베드로는 장로들이 주인처럼 행하지 말고 삶으로 써 양무리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3절) 함을 권 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목회자 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받 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 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젊은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겸 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5-6절).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 종해야 하며 양쪽 모두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젊은 이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원수인 마 귀의 악한 계교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 받은 자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을 쌓고 있다는 것을 확 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인사와 작별(12-14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흩어진 나그네를 격려 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 축복하는 것보다 ‘평강’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후서 1:1-15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8장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시편 72편

1 하나님이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사야 19장

22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 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1-15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1-4절)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하였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특별한 사명을 맡아 파송된 자를 가리킵니다(1-2절). 성도들이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썩어 가는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4-5절).

우리가 해야 할 일(5-15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지극히 큰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4, 11절). 그리스인의 덕목은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5-7절).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기초하여 신앙의 덕목들이 더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8-9절). 베드로는 성도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길 원했고(10-11절),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12-15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후서 2:1-22 거짓 교사에 대한 반박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심판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0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폭로와 경고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16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8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9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렁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9장

2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숫양 일곱 마리를 야훼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시편 73편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하리이다

이사야 21장

6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베드로후서 2:1-22

거짓 교사에 대한 반박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심판(1-10절)

거짓 선지자들은 주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한 생활로 미혹케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것이나 그들의 파멸은 확실합니다(1-3절). 이어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과 대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등을 통하여 심판의 확실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4-10절).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폭로와 경고(11-22절)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도덕적 부패를 고발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것이 나았다고 탄식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들을 유혹하여 범죄에 빠뜨리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12-14절). 그는 거짓 교사들이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결국엔 멸망을 받게 될 것임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가 육체의 소욕을 좇는 자유로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17-19절).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경고합니다(20-22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베드로후서 3:1-18 주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주의 재림에 대한 증언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의 삶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30장

2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시편 74편

21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사야 22장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베드로후서 3:1-18

주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주의 재림에 대한 증언(1-10절)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의 가르침을 일깨워 줌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1-2절).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재림 자체를 부인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영원한 최후 심판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며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3-10절). 성도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알아, 재림의 확실성과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재림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의 삶(11-18절)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 가기를 기도합니다(11-18절).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성도라 할 지라도 미혹되면, 굳센 데서 떨어져 불법과 불순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16-18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요한일서 1:1-10 |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 회개를 요구하신다

저작 목적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영적 교제의 조건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지니와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31장

19 너희는 이제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20**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시편 75편

9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들리로다

이사야 23장

8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1-10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 회개를
요구하신다

저작 목적(1-4절)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과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혼란이 생기던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일서 전체의 서론으로 그 기록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미 계셨던 분이며, 실제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참되고 살아있는 교제를 갖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충만한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귀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참된 교제이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힘써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영적 교제의 조건(5-10절)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필요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조건이란 빛 가운데서의 행함(5-7절)과 죄의 자백(8-1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의 속성에 걸맞는 성도의 내적 변화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아닌 빛 가운데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요한일서 2:1-17 하나님과의 교제

참된 교제의 삶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 빛 가운데 있다가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음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음 **14**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5**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음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음 **16**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8**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9**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32장

13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14**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야훼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시편 77편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사야 24장

1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14**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야훼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야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요한일서 2:1-17

하나님과 교제

참된 교제의 삶(1-11절)

2장에서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언급합니다. 당시 도덕법 준수까지도 거부한 영지주의자들의 자유관은 자유가 아닌 방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보일 수 있는 자기 증거는 곧 계명 준수(1-7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실천(8-11절)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진실로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9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몸 된 형제자매와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힘써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12-17절)

요한일서의 저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빛 가운데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성도), 영육 간에 강건한 모습(청년), 그리고 영적 지식에 성숙한 성도의 모습(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17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요한일서 3:10-24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판별 근거

10 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참된 교제와 사랑의 실천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33장

3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 애굽인은 야훼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시편 78편

7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5장

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요한일서 3:10-24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판별 근거(10-12절)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므로 그 분을 닮아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사탄에게 속하였으므로 불법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오직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위를 보고 이단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에 의해 성도들이 미혹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죽임으로써 악한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분열, 시기, 질투, 살인의 죄가 되는 마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는 가인과 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분열, 시기, 질투 그리고 마음의 살인을 회개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 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제와 사랑의 실천(13-24절)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의 교제가 현실 속에서 성도간의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따르는 핏박이 당연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왜 필연적인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요한일서 4:1-12 |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별과 경계 권면

참된 교제를 위한 영 분별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의 교제에 대한 권면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34장

16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시편 78편

38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셨으니 **39**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요한일서 4:1-12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별과 경계 권면

참된 교제를 위한 영 분별(1-6절)

요한은 영지주의 등의 이단 침투를 막기 위한 영 분별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단자들을 분별하는 지침을 주었으나 그것은 도덕적 분별이며, 여기에서는 교리적 분별이라는 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 분별의 지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 말씀과의 일치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경계하며 오직 말씀의 빛에 비추어 바른 성경적, 교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에 대한 권면(7-12절)

요한은 교리적 측면의 영 분별을 언급한 이후 다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 교리적인 영 분별 만큼이나 적그리스도의 침투를 막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신자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요한일서 5:1-12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믿음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계명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무릇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35장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야훼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시편 79편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사야 27장

13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요한일서 5:1-12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믿음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계명(1-4절)

요한일서 5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확증을 보여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의 계명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계명은 가벼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5-12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의 투쟁 속에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이김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믿을 때에 악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보호를 받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요한이서 1:1-11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능력의 삶

진리를 행하여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자

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를 스스로 삼가라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36장

13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시편 80편

19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사야 28장

22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야훼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요한이서 1:1-11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능력의 삶

진리를 행하여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자(1-6절)

요한은 당시 더욱 심해져 가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전합니다. 요한은 첫 번째 편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완성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품을 때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미혹하는 자를 스스로 삼가라(7-11절)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남아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7절). 이에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요한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적 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져 이미 맺은 열매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도록 힘쓰라고 권면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집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하며, 미혹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신명기 1:9-18 재판장을 세워 바른 재판을 이룸**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9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0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11**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2**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3**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지휘관을 세우는 원칙

14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5**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 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16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전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18**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 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 81편

9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사야 29장

19 겸손한 자에게 야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요한삼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명기 1:9-18

재판장을 세워 바른 재판을 이룸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9~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의 지휘관을 세워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재판장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을 세우는 원칙(14~16절)

지휘관을 세우는 원칙은 각 지파에서 지혜로운 자와 지식이 풍성하며 경험이 많고 현명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파별 수령들 중에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되 지파 안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를 세우라 한 것입니다. 체계적인 조직 안에서는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17~18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벌, 지위, 권력, 명예, 성공 등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외모를 보지 말며 귀천을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도자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 모세가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에 맞서 싸우며 나아갈 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영원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전진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신명기 2:26-37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을 치다

평화조약 체결을 거절한 시혼 왕

26 내가 그테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7**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29**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계획

31 그 때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2**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3**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4** 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5**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36**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37**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 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 83편

16 야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사야 30장

18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유다서 1장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신명기 2:26-37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을 치다

평화조약 체결을 거절한 시혼 왕(26-3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실 것은 요단강 서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 동쪽의 헤스본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 땅으로 통과하되 큰길로만 갈 것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과 양식, 물을 사서 먹고 걸어서 지나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며 교역할 경우 큰 몫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에 있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같이 하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이러한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기에, 결국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31-37절)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모든 아모리 족속들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 까지도 칼로 진멸했고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시혼 왕을 완고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모든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로엘과 그 골짜기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몬 족속의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신명기 3:1-17 야훼의 승리

바산 왕의 옥의 패배

1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2**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5**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6**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7**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8** 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9**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10**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11**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 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백성을 위한 야훼의 전쟁

12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결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15**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니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압복 강까지며 **17**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 85편

12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사야 31장

8 앓수르는 칼에 얹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의 불은 시온에 있고 야훼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신명기 3:1-17

야훼의 승리

바산 왕의 옥의 패배(1-11절)

가나안 정복 직전, 계속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점령 하던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 가매'(1절)의 표현은 헤스본 왕 시혼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않고, 북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야르묵 강 북단의 고원 지대로 계속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당시 요단 동편(Trans-Jordan) 땅에는 압복 강을 경계로 두 아모리 왕국이 있었는데, 곧 헤스본을 중심으로 시혼이 통치하는 아 모리 남왕국과 바산을 중심으로 바산왕 옥이 통치하 는 아모리 북 왕국이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절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남 왕국을 점령하고, 아모리 북 왕국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 니다.

백성을 위한 야훼의 전쟁(12-17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셔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야훼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넘어가 싸우시 고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그곳을 취하게 된 것입니 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며 주 관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아무런 해(害)나 두 려움 없이 승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신명기 4:1-14 하나님의 규례

지켜 행하라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3** 야훼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

7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 야훼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 그 때에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시라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 87편

6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이사야 32장

7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나 **8**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요한계시록 2장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명기 4:1-14

하나님의 규례

지켜 행하라(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안전하게 차지하고 그 땅에서 유업을 이어받으며 오랫동안 사는 일은, 각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의 일, 즉 야훼께서 브올 산에서 하신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브올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야훼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야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7-14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민족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규례에 관해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열방의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신명기 5:1-21 십계명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의 말씀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 야훼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야훼와 너희 중간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라

계명 선포

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1**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2** 네 하나님 야훼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훼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6** 너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7** 살인하지 말지니라 **18** 간음하지 말지니라 **19**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 88편

1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사야 33장

5 야훼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6**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훼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요한계시록 3장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신명기 5:1-21

십계명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의 말씀(1-6절)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또 ‘다 바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명 선포(7-21절)

십계명은 ‘말씀’(Word)입니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영어로 ‘열 가지 명령들’(Ten Commandments)라고 번역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 가지 말씀들’(Ten Words)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열 가지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바르의 복수인 데바림(דְּבָרִים)으로 쓰여 ‘말씀들’이라고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엄청나게 풍성한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KJV)에만 85개의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될 정도로 풍성한 단어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 하나님 찬양하기

- 324장(통360)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주님 말씀하시면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민수기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계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로 접어드는 시점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훈련될 것이고 그곳을 잘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출애굽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성막에는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었기에 이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어느것도 없는 험겨운 광야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정말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급이며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일상에서 찾아 이야기 해봅시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걸음을 떼기 직전입니다. 이 때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가고 서는 것을 결정했나요?(17-23절)



적용과 나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던 모세도 민족의 왕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도 이 민족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가고 서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나눠봅시다.

말씀
다지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훗날 선지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오직 한 명의 신랑만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유일한 신랑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내 안에 주인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나를 정결한 신부로 삼으소서.
2. 이제는 내 삶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소서.



5월 10일
공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 하나님 찬양하기

-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말의 굴레나 재갈과 배의 키에 비교합니다. 말은 힘이 센 동물이지만, 사람은 말의 입에 굴레를 씌우거나 재갈 즉 쇠토막을 물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고 사용합니다. 큰 배도 배 밑에 달려 있는 작은 키에 의해 사공의 뜻대로 운전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하며 큰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말에 대한 중요함을 3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야고보는 혀를 불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혀는 무엇을 더럽히고 있나요? (약3:6)

2. 혀에서 나오는 말로 무엇과 무엇이 나올수 있나요?(약3:10)

💬 **적용과 나눔** 야고보는 우리가 말의 실수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의 실수중 가장 곤란했던 실수는 어떤 실수 였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1. 시기와 다름이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약3:16)

2.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3:18)



💬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고 남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기는 것들의 동물들은 길들일수 있고 함께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고 길들여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무섭고도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나의 말이 선한말과 믿음의 말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월 17일
공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의 모습

🎵 하나님 찬양하기

-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40년 광야시절까지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땅으로 들어가기 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로 오랫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역할을 하며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가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민27:12-17)
2. 모세는 자기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민27:12-17)



적용과 나눔 모세는 약속한 땅 앞에서 사명을 멈추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돌보았는지 나누어봅시다. 또한 앞으로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나누어봅시다.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능력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또한 청지기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나누어봅시다.

말씀
다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맡겨진 일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즉,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땅 앞에서 이제 멈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 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1.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2. 교회 안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 24일
공과

하나님의 자녀

🎵 하나님 찬양하기

- 516장 옴은 길 따르라 의의 길
-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요한일서 3장의 첫 부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의 성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는데, 믿음으로 그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삶으로 그의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진실로 성도 됨의 진정한 표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일 3:1)

적용과 나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 거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1.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요일3:3)
2.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요일3:18-20)

적용과 나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때 문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그분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며,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들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2. 믿는 자들은 서로를 위해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5월 31일
공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 하나님 찬양하기

-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백성의 정의’란 뜻.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Antiochus II, B.C. 262-246년경)에 의해 건설되어 그의 아내 ‘라오디케’(Laodice)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 히에라볼리 남쪽 10km, 골로새 서쪽 16km 지점, 메안더 강 지류인 루커스 강 연안에 위치한 브루기아 주(州)의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이며,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는데,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 멀었다’고 지적하면서(계 3:17)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고 영적 무지를 깨우친 것은 이런 지역적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씀
나누기**관찰과 묵상**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그들의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나에게는 해당 되는 점이 있지 않은지 적어 봅시다.

💬 **적용과 나눔** 미지근한 신앙생활과 뜨거운 신앙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고치시는지 본문 말씀에서 찾아 기록해 봅시다.

💬 **적용과 나눔**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와 같이 설교 중에 아니면 믿음의 선배 교우등등으로 부터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받고 고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어둠의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론에만 충실한 입술로만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기도하기**

1.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 합시다.
2.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헝가리 집시 종족 소식 (2024.3.28)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 19-20)

샬롬!

헝가리는 아직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아직도 순간순간 몸이 움츠러지지만 드넓은 초원의 푸르름이 희망 가득찬 봄의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되신 사랑하는 교회들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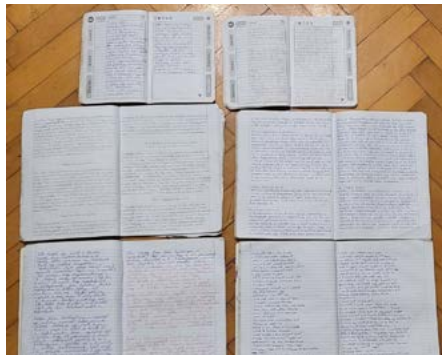
저희 가정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큰 용기 얻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노인영 선교사가 심한감기로 두달정도 고생하였고 홍은혜의 발 통증과 부정맥으로 건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교정,부정맥)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견디지고 호전되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제자훈련, 성경필사



제자훈련 (티비,에르지)



마태복음 필사 6명



펠수레그메츠



우이헤이 마티



미스콜츠 청소년반(15세~30세)

티비,에르지 부부는 술,담배,하지않고 성실하며 정직한 부부입니다. 그동안 장애 아이들 때문에 교회출석에 어려워 심방하여 두달여간 제자훈련을 하였고 믿음으로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출석 할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새로 출석하고 있는 마티 형제가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집시들은 특별히 리듬감과 춤에 재능이 있지만 음감 좋은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티 형제는 음색과 음정, 소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쓰임받고 영광돌리며 협력할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우이헤이교회는 마티형제 부인과, 친형부부, 등 새로운 장년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도 진지하게 받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한 모든 공동체가 예배와 제자훈련, 성경암송, 마태복음을 필사하였고 더 열심을 내어 신약전서(27권) 필사에 도전하고 있으며 먼 미래를 꿈꾸며 한글공부반도 시작되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않고 말씀을 읽고 쓰면서 큰 은혜 받으며 믿음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본소식~

거비,어넷 부부는 아직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늘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에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좋은소식을 통보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메일로 보냈고 이제 실제 계약서가 준비되면 싸인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거처할 집과 재정관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순적하게 일터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비 러찌 썬디 어벳



지난 여성의날에 집시형제들이 노인영 선교사에게 축복의 메시지와 사랑을 담아 꽃을 전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인영 선교사는 많이 아파서 직접 받지는 못하였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받기만 원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을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러찌할 아버지는 오른쪽 썬디자매 아버지인데 마음을 오픈하고 전도되어 어머니랑 같이 예배에 출석하여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표현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사랑이 더 커져만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땅을 덮으시사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주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소서!



보드록혈롬



미스콜츠



우이헤이 유년부



집 수리 사역



보드록혈롬 초등부



열쇼줄쳐 집시교회



디딤돌선교회 장학금 (열쇼줄쳐교회 고등학생 11명), 우이헤이 중학생9명

Út készül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집시형제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Eljöttél, Szellemed itt jár – imádunk hát, imádunk hát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Út készül, csodákat látunk; álmok válnak végre valóra 큰 길을 만드시는 주

Így lesz, Isten köztűng jár. 기적을 행하시는 주, 꿈을 이루어 주시네

Akkor is ha nem látom, nem érzem, bírok nektek boi-zi a-ya-do

Akkor is, ha nem látom, nem érzem, bírok nektek ne-ke ne-ke-zi-ja-a-do

Te akkor is harcolsz értem,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시네

Akkor is harcolsz értem! 날 위해 싸우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새 길을 여시는 분임을 체험케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열광케 하소서!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영광 올려드리는 선교되도록 더 민감하고 깨어 있기를 기도하며 후방에서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집시형제들이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때에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열광케 하소서.
2. 거비,어넷 부부의 공장 일자리가 막힘없이 진행되게 도우소서.
3. 티비,에르지 부부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에 출석하여 동역의 길이 열리도록.
3. 마티형제의 음악적 달란트를 주님영광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4. 신장투석,거동이 어려우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변에서 많이 돕게하시니 감사드리며 영,육이 강건하시고 평안하시도록.
5. 저희가정이 더 민감하게 깨어있어 집시형제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홍택수 노인영 (은혜) 선교사 올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땅을 덮으시사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주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오늘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예수님의 평안으로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요르단 마다바 교회는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와 담임목사님,
 사모님의 중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팔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시작된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교회 성도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드
 리고, 성령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90여명의 성도가 사도행전 성경필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쓰고, 묵상을 기록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
 해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월 ~ 3월의 사역과 은혜〉

지난 1월에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1달 동안 특별 행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10명의 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행사를 준비했고, 50명



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성경퀴즈 대회, 씨네마 데이, 액티비티 데이,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50명은 3개월 동안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바일에 빠져 있었던 아이들은 자신을 이기는 싸움을 하며, 하루에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와 묵상이 끝난후 3일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나는 엄마다’ 라는 주제로 어머니 수련회를 3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진행한 행사인 만큼 어머니들은 어느 때 보다도 더 열



심히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어머니들 모두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성경필사와 묵상을 했고, 수련회를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해 배우고,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수련회 준비를 위해 모든 어머니들은 현재 사도행전 필사와 묵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 사는 여성들의 삶은 늘 고단하고, 힘듭니다. 어머니들은 수련회를 통해 마음껏 웃으며, 환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받았고, 은혜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르단 마다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더 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마음을 모아 중보 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세요.

기도제목

1. 마다바 교회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여러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라크 난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팔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4. 성경말씀 필사를 통해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교회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요르단에서 유학중, 글로리아 올림

미자립교회 선교회 회원 모집

- 선교회원 활동 내용 : 미자립교회 방문 및 예배·전도
- 문의 : 국중석 장로 • 010-2889-5402

샬롬!

모자이크 기도회를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국내의 미자립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미자립교회 후원 헌금을 통하여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하여 주신 헌금 전액은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에 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자립교회 후원 사업은 정재명 담임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5,000출석 성도 · 500 지구역 세우기 · 50교회 세우기”의 일환으로 국내의 도시와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를 세워가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미자립교회 선교와 지원을 위하여 “미자립교회 선교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원장 국중석 장로



A large, empty white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prayer requests and Bible reading notes.